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8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9.02~2026.09.08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공항(갈등), 도정질문(정례회), 위성곤(민선), 공공기관(유치), 청년(창업)
경제·관광	소비(소상공인), 관광객(숙박), 감귤(당도), 추석(할인), 고용(일자리)
지역·사회	실종(종결), 자율주행(운행), 돌봄(격차), 강풍(해상), 치안(순찰)

※ 분석 기간 : 26.09.02.~26.09.0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공항(갈등)	- 제2공항 갈등해소 3대 방침 발표 - 도정질문서 갈등조정협의회 공방 - 3대 방침 두고 기대·우려 교차
	도정질문(정례회)	- 민선 9기 첫 도정질문서 현안 공방 - 행정체제 개편 재추진 시기 공방 - BRT·항공좌석난 등 교통현안 질의
	위성곤(민선)	- 청다오 향로 혈세 낭비 공식 사과 - 추자풍력 1300억 이익공유 재검토 - 3대 성장엔진 기업유치·일자리 목표
	공공기관(유치)	-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한국마사회 유치 4파전 총력전 - 이전기업 유치 지원 문턱 완화
	청년(창업)	- 제주 청년 5명 유네스코 본부 연수 - 청년정책 조직 통합 놓고 공방 - 청년 취업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소비(소상공인)	- 8월 소비자물가 3.1% 상승 재확대 - 탐나는전 캐시백 한도 100만원 상향 -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추진
	관광객(숙박)	- 관광객 카드소비 감소 '악화세' 진단 - 환승 거점 연계 관광시장 다변화 - 전국체전 대비 '관광 안심망' 가동
	감귤(당도)	- 노지감귤 생산 7.8% ↑ 품질 역대 최고 -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 하우스감귤 광화문 소비촉진 행사
	추석(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탐나오 숙박 40% 할인 행사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한정 답례품
	고용(일자리)	- 고용률 72% 개선 속 질적 한계 진단 - 호텔·리조트 원하청 격차완화 협약 - 대한민국 일자리포럼 제주 개최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실종(종결)	- 검찰, 경찰 3개 기관 동시 압수수색 - 경찰청장 대행, 취임 첫날 제주 사과 - 유족, 파면 요구·국가배상소송 예고
	자율주행(운행)	- 탐라자율차, 도심 노선버스 안착 -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차 등장 - 지역책임택시 구좌읍 시범 운행
	돌봄(격차)	- 초등돌봄 방학 급식 운영 토론회 - 초등 1·2학년 3시 하교안 반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6억원 투입
	강풍(해상)	- 태풍 간접영향 사흘째 강풍 피해 속출 - 강풍에 제주항 크레인 전도 2명 사상 - 주 후반 다시 초속 15m 강풍 예보
	치안(순찰)	- 추석 앞 특별치안활동 비상 2단계 - 민간 1543명 치안안전망으로 연결 - 치안 과담 확산에 경찰 적극 해명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9월 2일~9월 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46건임
 - 정치·행정 분야 309건, 경제·관광 189건, 지역·사회 44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공항(갈등), 도정질문(정례회), 위성곤(민선), 공공기관(유치), 청년(창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공항 (갈등)	- 제2공항 갈등해소 3대 방침 발표 · 제주도가 8일 브리핑을 열어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4곳 이상으로 교차 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 절차 전 도민 의견 수렴 등 도민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3대 방침'을 공식 발표함. ·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은 내년 1월 결정되고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내려질 전망이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해 지사에게 권고할 갈등조정협의회에 환경영향 갈등 조정 역할까지 부여되는 등 핵심 쟁점 검증과 갈등 정리 절차가 본격화됨.
-------	------------	--

정치·행정	공항 (갈등)	- 도정질문서 갈등조정협의회 공방 · 3일부터 열린 제45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지사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2027년 상반기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사가 구상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날선 신경전이 이어짐. · 위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김항국 의원은 법정 기구 외 민간협의회 구성 시 두 개의 갈등 조정 기구가 충돌해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 3대 방침 두고 기대·우려 교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4일 성명을 통해 제2공항 문제를 풀 가장 분명한 해법은 주민투표라고 주장했고, 위성곤 지사도 도정질문에서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 8일 발표된 3대 방침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증 방법 제시에도 최종 결정 방식이 모호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라는 갈등 해소 약속 시한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이 주목됨.
	도정질문 (정례회)	- 민선 9기 첫 도정질문서 현안 공방 · 제주도의의회가 3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4·7일 사흘에 걸쳐 위성곤 지사를 상대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도정질문을 진행했으며, 첫날부터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짐. · 정다운 의원은 실종·위기 사건 공동대응체계 등 제주형 종합안전망 구축과 청년 정책 전담조직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도인지장애 관리체계 구축과 홀로 여행객 안심서비스 실효성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름. - 행정체제 개편 재추진 시기 공방 · 송창권 의원이 4일 도정질문에서 행정구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민선 8기 도정에서 논의되다 좌초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하며, 더 미루면 또 물건너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추진을 촉구함. · 위성곤 지사는 도민 피로감을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당장은 민생과 제2공항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고 밝혔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재논의 제안에도 관광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을 들어 난색을 보이는 등 속도 조절 방침을 분명히 함. - BRT·항공좌석난 등 교통현안 질의 · 위성곤 지사가 3일 도정질문에서 양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소통 부족과 도민 불편이 상존한다며, 오는 11월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두 정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국내선 항공좌석난 해소 방안을 묻는 양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중앙정부와 항공사에 슬롯 확대와 항공기 증편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UAM 상용화 추진 방향과 도시교통정책 개선 등 교통 분야 현안 질의가 잇따름.

정치·행정	위성곤 (민선)	- 청다오 향로 혈세 낭비 공식 사과 · 위성곤 지사가 7일 열린 제45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이 제주~청다오 국제항로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정 손실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묻자,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도정 책임자로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함. · 청다오 항로는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과 중앙투자심사 누락 위법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위 지사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계약 재협상에 더해 물동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개하는 등 개선 의지를 밝힘. - 추자풍력 1300억 이익공유 재검토 · 위성곤 지사가 4일 도정질문에서 김승준 의원이 추자해상풍력 유찰 원인과 대책을 묻자, 제주 최대 규모로 추진되다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유찰돼 표류하는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된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이익 공유화기금 조건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재설계 방침을 밝힘. · 유찰 원인으로 전력계통과 이익공유 조건을 꼽으며 한림해상풍력처럼 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는 '바람연금'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풍력 이익 공유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 3대 성장엔진 기업유치·일자리 목표 · 위성곤 지사가 7일 도정질문에서 김봉현 의원의 질의에 재생에너지와 소형위성, 청정바이오·웰니스 등 3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해 제주경제의 미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 AI 도입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으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고며 적극적인 확장재정 가능성을 내비침.
	공공기관 (유치)	-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혁신도시·기존 건물 활용 등 이전 원칙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하기로 함. · 제주도가 요구해 온 한국마사회 등 5개 기관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위성곤 지사는 4일 도정질문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를 이전이 가장 적합한 희망 기관으로 꼽았고, 청년 고용 정책 수립 등 차별화된 전략 주문이 잇따름. - 한국마사회 유치 4파전 총력전 ·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두고 제주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 경북 등 4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말 사육두수의 54.7%를 차지해 최적의 입지와 경쟁력을 갖춘 제주도가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총력전에 나섬. · 제주도는 8일 헤리티크제주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과 함께 전문가·생산자단체 100여명이 참여하는 '제주 말산업 미래전략과 상생협력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마사회 본사 유치에 힘을 모음.

정치·행정	공공기관 (유치)	- 이전기업 유치 지원 문턱 완화 · 제주도가 기업의 제주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으며, 상시고용 요건 완화로 직원 10명 규모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전기업 지원 대상을 넓힘. ·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이전 종사자를 위한 정착보조금을 신설하며 물류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이전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고용·정착·물류비 등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청년 (창업)	- 제주 청년 5명 유네스코 본부 연수 · 제주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제주 청년 유네스코 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된 제주 청년 5명이 지난달 31일부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6개월간의 현지 연수를 시작해 국제기구 현장 실무를 직접 경험함. · 이번 연수에는 지원자 41명 가운데 8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청년들이 참여해 국제회의와 프로젝트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되며, 제주 청년이 국제기구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청년정책 조직 통합 놓고 공방 ·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에서 청년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통합되면서, 3일 도정질문에서 정다운 의원이 청년이 떠나는 제주에서 청년정책 인력이 도리어 축소돼 청년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 제기함. · 위성곤 지사는 청년 업무 담당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반박했으며, 청년정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전담 재단 설립 제안과 관련해서는 출연기관 설립과 공공위탁 방식 등 청년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 취업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 제주도가 도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채용 유형에 따라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힘. · 지원 유형은 생애 첫 일자리와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등 세 가지로 나뉘며, 도내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채용 부담 완화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됨.

경제·관광	소비 (소상공인)	-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추진 · 제주도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질병 진단을 받는 경우 대출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자동으로 대신 갚아주는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20~65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함. · 제주시도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해 소상공인 AI·디지털 전환, 디지털 마케팅, 고용보험료, 출산급여 등 4대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출산·폐업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추진됨.
	관광객 (숙박)	- 관광객 카드소비 감소 '악화세' 진단 ·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이 7일 발표한 '제주 사회경제 현황 지표'에서 지난 6월 제주지역 관광객 카드소비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하는 등 제주 관광산업이 악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와 관광시장 회복이 과제로 부상함. · 연구원은 최근 제주경제가 소비의 취약성과 생산의 장기 부진, 관광의 뚜렷한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됐지만 누적된 고물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음. - 환승 거점 연계 관광시장 다변화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특정 국가에 편중된 제주 관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시아 최대 거점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에서 제주 홍보를 진행하는 등 세계적 환승 거점 공항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함. · 직항노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승객을 겨냥한 제주 관광상품을 본격 선보이고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환승 상품도 출시하는 등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본격 추진됨. - 전국체전 대비 '관광 안심망' 가동 · 제주도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과 선수단의 안전한 제주 여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시설과 관광지에 대한 모니터링, 현장 안전 점검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관광 안심망'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관광 분야 안전 관리에 나섬. · 제주에서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9월 11~16일)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 16~22일)가 잇따라 열릴 예정으로, 대회 기간 선수단과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용태세 준비가 이뤄짐.
	감귤 (당도)	- 노지감귤 생산 7.8%↑ 품질 역대 최고 ·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6년 노지감귤 2차 착과 상황 관측조사 결과, 올해산 생산예상량은 지난해보다 7.8% 늘어난 44만3000t 안팎으로 전망되고 당도는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감귤원 320개소 640그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과실이 커지는 시기에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은 날씨가 이어져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아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가 기대됨. -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산 극조생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상품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의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극조생감귤을 대상으로 하는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일제히 시행함.

경제·관광	감귤 (당도)	· 검사 대상은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감귤을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수확 전 당도검사를 통해 완숙되지 않은 상품 외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품질 관리 장치로 운영됨. - 하우스감귤 광화문 소비촉진 행사 ·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직장인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 하우스감귤 홍보행사를 열어, 제철을 맞은 하우스감귤의 높은 당도와 신선함을 알리고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에 나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결과 추석을 앞두고 하우스감귤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달 도매가격이 8.6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침체된 농가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이 이어짐.
	추석 (할인)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제주도가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닛새간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 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탐나오 숙박 40% 할인 행사 운영 · 제주도가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주관광 공공플랫폼 '탐나오'에서 숙박 최대 40%, 관광지·맛집 등 30% 할인을 제공하는 '더-제주 포시즌, 더 머무는 제주' 할인 행사를 운영함. · 할인 행사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며, 도내 62개 업체가 공연·체험 등 다채로운 현장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등 온라인 할인과 문화·체험행사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연휴에 형성되는 가을 여행수요 유치 효과가 주목됨. - 고향사랑기부제 추석 한정 답례품 · 제주도가 추석을 맞아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제주감귤·흑돼지 꾸러미와 수제떡 선물꾸러미 등 추석 한정 답례품 꾸러미 4종을 선보이고 기부자에게 추가 증정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함. · 답례품은 흑돼지 가공품 1.1kg과 하우스감귤 2.5kg으로 구성된 꾸러미, 제주 오메기떡·설기떡 등 18개입 수제떡 꾸러미 등으로 마련됐으며,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늘리고 제주 특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고용 (일자리)	- 고용률 72% 개선 속 질적 한계 진단 · 한국지역혁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지역 고용률이 72%를 기록하는 등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세가 뚜렷했으나, 대형소매점 판매가 1년 새 26% 감소하는 등 소비·관광 부진과 엇갈린 흐름을 보임.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은 전국보다 낮고 임시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높아,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일자리 질 제고가 과제로 제시됨. - 호텔·리조트 원하청 격차완화 협약 · 제주도가 4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고용노동부, 롯데관광개발·제주신화월

경제·관광	고용 (일자리)	드·호텔신라 등 원청기업 3개사와 '제주 호텔·리조트업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해 협력업체 노동자 815명이 근속지원금과 휴가비를 받게 됨. - 원청기업과 계약한 협력업체 16개사도 사업에 참여하며, 호텔·리조트업의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줄여 지역 관광산업을 떠받치는 협력업체 종사자의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한민국 일자리포럼 제주 개최 - 제주도가 고용노동부·한국지역고용학회·한국고용정보원 등과 함께 3일부터 이틀간 제주신화월드에서 전국 지자체·중앙정부·학계·연구기관의 일자리정책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2026 대한민국 일자리포럼 in 제주'를 개최함. '민선9기, AI시대,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제주 관광산업 일자리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단순 서비스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직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는 등 지역 주도 일자리정책이 논의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실종(종결), 자율주행(운행), 돌봄(격차), 강풍(해상), 치안(순찰)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실종 (종결)	- 검찰, 경찰 3개 기관 동시 압수수색 · 제주지방검찰청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8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3곳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이번 압수수색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가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임. - 경찰청장 대행, 취임 첫날 제주 사과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첫 행선지로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이 허위 종결된 뒤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힘. · 김 대행은 경찰 과실로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실종사건 처리체계 전반의 쇄신 방안 마련을 1호 지시사항으로 내렸고, 같은 날 취임한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도 제주 치안의 문제점을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함. - 유족, 파면 요구·국가배상소송 예고 ·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신고 10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요청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함. ·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와 사건을 선불리 종결시키려 하는지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15건에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됨.
지역·사회	자율주행 (운행)	- 탐라자율차, 도심 노선버스 안착 · 제주에서 자율주행차 '탐라자율차'가 제주시~공항~서귀포시를 잇는 901번 노선 버스로 안착하고 신제주권~공항 구간에 902번이 배정되는 등, 자율주행 버스가 도심과 공항을 오가는 실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첨단과학단지에서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시범운행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이용자 호응도 이어지고 있어, 복잡한 도로 구조와 교통난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가 실생활 인프라로 진화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확산이 기대됨. -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차 등장 · 성산일출봉과 광치기해변, 섭지코지 등 관광지의 창밖 풍경을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차 '일출봉 GO!'가 운행되면서 신기하고 편하다는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제주 관광지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름. · 복잡한 관광지에서 렌터카 이용과 주차 걱정을 덜 수 있어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노선 버스에 이어 관광 분야까지 확산되며 미래 기술에서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다가서고 있음. - 지역책임택시 구좌읍 시범 운행 · 민선 9기 위성곤 지사의 공약인 '읍면 지역 지역책임택시'가 10월부터 한 달

지역·사회	자율 주행 (운행)	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지역에서 시범 운행되며, 주민이 부르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가 곧바로 배치되는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제주도가 7일 밝힘. · 이용은 티머니GO 앱이나 대표 호출 번호인 064-742-8282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읍면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생활밀착형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됨.
	돌봄 (격차)	- 초등돌봄 방학 급식 운영 토론회 · 제주도교육청이 4일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 160명 안팎이 참여한 가운데 '초등돌봄 방학 중 급식 운영 관련 토론회'를 열어 방학마다 반복되는 돌봄 학생 급식 문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함. · 올해부터 학교 급식종사자가 365일 상시근로 체계로 전환된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방학 중 급식 제공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운영 주체와 업무분장, 노동강도 등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됨. - 초등 1·2학년 3시 하교안 반대 · 국가교육위원회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오후 1시께인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께로 늦추는 정규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제주교총이 4일 보도자료와 성명을 내고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힘. · 제주교총은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 문제를 저학년 학생들의 의무수업 시간을 늘려 해결하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교육의 질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 방식을 둘러싼 교육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6억원 투입 · 제주도가 장애아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 사업비 46억6868만원을 투입해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힘. · 이 사업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동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놀이와 안전·신변보호,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돌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강풍 (해상)	- 태풍 간접영향 사흘째 강풍 피해 속출 · 제24호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으로 4일부터 사흘째 제주에 초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6일 오후 1시 기준 강풍 관련 신고 46건이 접수됐고, 나무 쓰러짐과 신호등 부러짐, 중앙분리대 전도 등 피해가 도 전역에서 속출함. · 4~5일 제주도에 강풍·풍랑특보가 확대 발효된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는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높은 파도로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해안가 사고도 잇따랐으며, 강풍이 이어지는 동안 제주지방의 폭염·열대야특보는 모두 해제됨. - 강풍에 제주항 크레인 전도 2명 사상 · 4일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바닥 철판 보수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지며 50대 남성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끝에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강풍·풍랑특보 확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기상 상

지역·사회	강풍 (해상)	황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항·포구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함. - 주 후반 다시 초속 15m 강풍 예보 ·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으나, 9일부터는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차차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강풍 피해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상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다시 대비가 요구됨. · 앞서 태풍 크로반의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지방은 5일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5~40mm의 비가 내리는 등 주말 동안 비바람이 이어졌으며, 무더위가 물러난 뒤에도 기상 변동성이 커 해상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치안 (순찰)	- 추석 앞 특별치안활동 비상 2단계 ·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달 28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 내근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비상 2단계 수준의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해, 연인원 1600여명이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야간 골목상권 등 생활 현장을 집중 순찰함. · 제주자치경찰위원회도 3일 정기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의 추석 연휴 종합 치안대책을 논의해 관광지·생활권 도보순찰 강화와 음주운전 단속 확대, 실종 등 긴급상황 시 경찰·소방·해경 공동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 민간 1543명 치안안전망으로 연결 ·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민간경비, 민간드론 등 민간 안전활동 인력 1543명을 하나의 공동체 치안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제주안전 총력대응'을 추진한다고 8일 밝힘. · 민간 공동체는 생활권과 관광지, 해안, 야간 취약지역까지 역할을 분담해 위험요인 신고부터 후속 순찰까지 담당하게 되며, 추석 대비 특별 안전대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한데 모아 치안안전망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치안 괴담 확산에 경찰 적극 해명 ·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는 등 제주 치안 불안을 조성하는 유튜브 영상과 SNS 게시물에 확산되자, 제주경찰청이 7일 설명자료를 내고 112 신고내역 확인 등 적극 해명에 나섬. ·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의 신고 내역은 없었고 8년·2년 전 사건까지 다시 소환되는 등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로도 괴담 등 허위 정보 게시물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